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하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보고대회에는 위대한 영웅시대의 주인공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원군미공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련사들의 자손들, 청년건설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천체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우리 인민에게 세세년년 충효를 주억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물려주었으며 진정한 모습으로 청사에 특기할 전승 70돐 기념행사에 참석한 존경하는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공화국의 영웅적인 첫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국호와 국기를 장장 70년간 영예롭게 사수하고 그 권위와 힘을 누리에 떨쳐가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속에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 주고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전체 중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내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참전자유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은 강대한 외래

제국주의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령토와 인민을 지켜내기 위한 조국수호전인 동시에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오만한 기도로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을 보위하고 인류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와 반동간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고강성과 격렬성에 있어서 미증유의 기록을 남기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승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은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미제와 결렬히 맞서 싸워 자주와 정의를 지키는 동방의 보루로 세계의 시각에 뚜렷이 새겨졌으며 존엄 높은 우리의 국호와 국기는 영웅성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기치로 누리에 빛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력사적의의와 심원한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빛나는 전승의 력사적의의는 가장 존엄한 환경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영웅적투쟁사를 개척하고 그것을 조선혁명의 전통으로, 우리 국가발전의 성격으로 굳혀놓는데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참혹한 비극으로 될수도 있었던 전쟁의 년대를 승리로 바꾼 그 위대한 력사가 있어 것처럼 혹독한 년대와 년대들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며 부국강병의 대

업을 완수한 새 조선의 력사가 탄생하였고 온갖 불의와 폭제를 짓부시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전설의 70년이 청사에 새겨졌다고 지적하였다.

전승의 그날로부터 흘러온 70년의 긴 세월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킨 전설적인 년대들과 전환의 분수령들은 레외없이 대내외정세가 복잡하고 국난이 닥쳐온 시기에 마련되었으며 시대를 격동시킨 무수한 영웅적위훈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전승세대의 혁명정신과 하나로 잇닿아있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은 승리의 영광과 함께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렬한 체험과 기어이 딛고 올라야 할 강국의 목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제의 침략야망을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전쟁의 결속이 정전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쓰라린 체험과 피땀한 원한이 있기에, 더이상 침략의 과녁이 될수 없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력사의 온갖 도전과 모진 고난속에서도 자위국방을 정책기조로 세우고 군력강화의 길을 즐기차게 걸어왔으며 력사는 리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대립되는 두 국간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되

고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장구한 기간 평화가 유지되고 지켜지고있는가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행성에 미국이라는 침략적실체, 패권적실체가 존재하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이 싸나가는 힘의 력사는 멈출수도 늦출수도 없다고 하면서 만일 미제가 대세의 흐름과 변화된 현실을 똑똑히 보지 않고 분별없이 날뛰며 조선에서 두번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과도한 야망과 함께 력사의 무덤에 매장되고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70년전 우리 인민이 세계평화에 호인민들로부터 사심없는 정신적 및 물질적방조를 받으며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의가 부정을 이기고 진보가 반동을 이기는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희생적으로 전쟁승리에 기여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명절을 축하하여 평양에 온 친선적립방인 로씨야연방의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대장동지를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기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위협하고 해치는 우리들을 타승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싸움에 떨쳐나선 로씨야정부와 군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전투적격의를 보내였다.

그는 패권과 팽창을 추구하여 행성의 곳곳에서 류혈적인 대결과 정변, 전쟁을 조작하고 부추기며 다른 나라들을 구속하며 해치려는 지배주의세력과 강권행위가 존재하는한 그 어느 나라와 지역도 안전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인민은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과 한전호에서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튼튼발전을 위하여, 유명무명의 수많은 용사들이 바친 숭고한 희생과 아름다운 님의 영생과 그들의 념원이 찬연히 살아 빛날지는 위대한 강국을 위하여, 후손만대 길이 빛날 사랑하는 우리 조국, 공화국의 무궁변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지단결하여 굴함없이 역세게 싸워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보고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온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젠 로씨야연방 대통령의 축하연설을 세르게이 쇼이구 로씨야연방 국방상이 대독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대회참가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는 뿌젠대통령의 연설에 열렬한 환호로써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전달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을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선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우리 조국을 무궁변영하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일떠세울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